

동구 지산 1동 도내기 마을 주민들

‘청춘 亞(아) ~ 告羅(고라)’

공동강연장 만들어 토크콘서트·강연회

사람이 곧 책이다
‘사람 도서관’ 운영동네 방송국 열어
지역 공동체 완성

‘광주 마을 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75개 마을 참여 후끈

광주시 동구 지산 1동 도내기 마을 주민들은 최근 광주시에 ‘청춘 亞(아) ~ 告羅(고라)’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제안했다. 고대 그리스의 공공 광장을 가리키는 아고라를 한자로 바꿔 ‘젊은이들이여, 소통하고 넓게 펼쳐라’는 의미를 담았다.

사업 내용은 마을에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 강연장을 만들어 10대 청소년 대상 토크 콘서트와 20대 대학생 및 청년 대상 강연회를 비롯한 청춘골목 페스티벌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 및 은퇴한 어르신을 초빙해 인생 경험 등을 공유하는 ‘사람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한켠에 동네 방송국도 만들어 지역 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요량이다.

침체한 구도심 마을을 살려내기 위해선 젊은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도내기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다.

신창지구 3차 호반베리디움 입주자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광주시 25개 마을 선정
300만~2000만원 지원

떠오른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972세대 3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최근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민간 다툼과 민원이 급증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험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웃사촌 정다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명으로 정하고, 입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와 작은 도서관 사업 등을 준비중이다.

이석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 축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이 동네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까지 하는 ‘광주 마을 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가 26일부터 광주시 주

최로 광주시청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 행사를 위해 지난 4 월부터 사업계획을 공개모집했으며, 최종 75개 마을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공모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며 심사에도 참여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매일 12~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25개 마을에 대해 30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는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심사단과 참여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중 심사단의 점수를 합산한다.

심사 결과는 내달 6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광주시 정민곤 안전행정국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마을 발전 방향을 직접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아니겠느냐”면서 “올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이렇게 활용하자”

- ① 한국민주주의 전당
- ② 인권평화센터 건립
- ③ 국제 인재양성 대학원

오는 2014년에 이전하게 될 광주 북구 문흥동 광주 교도소 부지에 광주시가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아닌 국제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시립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가 전당 유치의 최적지라고 끊고 있고, 법무부는 이전 부지에 구치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광주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과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광주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 오승룡 교수는 “교도소 부지를 교육기관 중심의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 NGO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할 교육기관과 미국의 케네디스쿨과 유사한 김대중 리더십 연구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독립적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전제로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이다”며 “전당이 유치되더라도 교도소 부지보다는 5·18 아카이브가 들어설 카톨릭센터 활용도나 공간활동, 접근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전당은 전국적인



오는 2014년 광주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게 될 광주 교도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고 있고, 특히 현실적으로 카톨릭센터의 물리적 공간 규모가 두 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민주주의전당의 상징성을 높이고 그 의미를 실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묘역 등의 인접 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한 광주 교도소 부지가 최적의 공간”이라고 오 교수의 제언을 번역했다.

김 위원은 이어 “민주주의전당은 광주 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로 봄야 하며, 만약 전당이 유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은 이뤄져야 한다”며 “광주 교도소 부지 활용방향은 인권 테마형 복합체험공간 기능 수행과 시민사회와의 민주인권 역량 강화 및 시민적 연대·교류를 통한 세계 대표적 민주인권평화 교육공간 기능, 도시 재생 차원의 주변 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원칙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률 광주시 인권담당관은 “광주시가 교도소 이전 부지에 추진중인 민주인권평화센터와 맞물려 전당 유치 부지로는 최적지”라며 “오 교수의 교육기관 설립 제안도 좋은 방안이어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수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사무관은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겠지만, 광주 구치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말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광주교도소 현 부지를 무상 양도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었고, 이에 법무부는 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세훈의 ‘빨간눈’

검찰, 첫 공판서 “무차별 종북딱지·신종 매카시즘 행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62) 전 국정보원장의 관련 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근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애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하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인터넷이 종북 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소중한 안보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말 들어 먹는 者가 하나도 없다



※비타민하우스 가맹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멀티비타민 웰 플러스

67% 60,000원

20,000원



한정판

43%

70,000원

40,000원

전립선 건강 복합쏘팔메토



한정판

35%

70,000원

45,000원

관절 건강 MSM 2000



한정판

25%

40,000원

30,000원

뼈 건강 프리미엄 비타민D



한정판

46%

50,000원

30,000원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C 1000



Vitamin House 구입문의 : 02-570-6075